

나이지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완료]

면적	924천 km ²	G D P	4,946억 달러 (2015)
인구	178.72백만 명 (2015)	1 인 당 GDP	2,767달러 (2015)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Naira (N)
대외정책	친서방 개방정책	환율(달러당)	192.44 (2015)

-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한반도의 4.1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아프리카 최대인 1.8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니제르, 베냉, 카메룬과 접경하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 371억 배럴의 원유(세계 11위)와 5.1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계 9위)를 보유한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 자원부국으로, 2003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급락하였음.
- 풍부한 천연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한편으로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치안 불안 등이 경제성장과 빈곤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5년 3월 대선에서 야당의 Muhammadu Buhari가 당선되고 Jonathan 前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깨끗이 인정함에 따라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부족간 및 종파간 갈등, 이슬람 무장단체 Boko Haram의 테러 공격 등으로 사회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저유가 지속과 무장조직의 석유시설 파괴에 따른 원유생산 차질에 따라 저조한 경제성장 전망

- 원유 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석유 부문이 경제와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GDP의 약 15%를 점유), 2000년대 중반부터 농업, 통신업, 서비스업의 성장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4~5%의 고성장을 유지해 왔음.
- 2014년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석유 부문의 성장세 지속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전년(5.4%) 대비 상승한 6.3%를 기록하였으나, 저유가 기조 지속과 함께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 지연 등으로 인해 2015년 경제성장률은 2.7%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에는 저유가 추세가 계속되는 동시에 원유 생산지대인 남부 Niger Delta의 무장조직 Niger Delta Avengers(NDA)에 의한 석유생산 시설 및 송유관 파괴 등으로 원유의 생산량 및 수출량이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치며 경기둔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됨.
- IMF는 2016년 4월의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이지리아의 2016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측하였으나, EIU는 2016년 7월 Country Report에서 나이지리아 경제가 2016년 들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여 연간 성장률이 0.4%로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저유가와 원유생산 차질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적자 악화 전망

- 재정수지는 원유 수출에 의한 재정수입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의 규모에 따라 흑자/적자 여부와 폭이 좌우되며, 2013년부터 공공부문의 임금인상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적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석유수출 수입(收入)은 나이지리아 재정수입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지가 2013년에 GDP 대비 -2.3%의 적자로 전환하였음.
- 이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2014년에는 대선과 총선을 앞둔 선심성 재정지출 증가로 -2.1%, 2015년에는 저유가와 산유량 감소로 -4.0%를 기록하는 등 재정적자 기조를 지속하였으며, 2016년에는 NDA의 파괴 활동으로 인한 산유량 감소로 석유수출 수입이 감소하면서 동 비율이 -4%대 후반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Buhari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6년 예산을 6조 600억 나이라 규모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정적자 해소 방안 등을 놓고 논쟁이 거듭되어 5월 6일야 비로소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당초 계획된 연내 재정지출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임.
 -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수입 규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국제유가 수준을 2016년 배럴당 평균 38달러로 상정하여 동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NDA의 테러 공격에 의한 원유의 생산량 및 수출량 감소는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지출 여력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됨.
-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2016년 2월 세계은행에 25억 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10억 달러 등 총 35억 달러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보유 중인 유로본드를 최대 10억 달러 규모까지 매각하고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 역내 위안화 표시 채권인 판다본드를 발행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 중임.

□ 나이라화 가치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대폭 상승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으로 2012년까지 수년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지속하다 2013년부터 식료품 국제가격의 안정 등으로 다소 하락하여 2013~15년 8~9%대 수준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였으며, 2016년에는 페그제 폐지에 따른 나이라화 가치 하락과 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15%에 근접하며 다시 두 자릿수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됨.

- 나이라화 실질가치의 약세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9%대에서 4월에 근 6년 만의 최고치인 13.7%를 기록한 데 이어 5월에는 15.6%로 더욱 상승하였음.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화표시 지출 억제를 목적으로 2015년 6월부터 41개 품목의 수입대금 결제에 공식 외환시장에서 교환한 외환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 중임.

- 동 41개 품목은 쌀, 토마토, 마가린 등의 식료품, 냉연강판 등의 중간재, 가구류 등의 내구소비재, 외화표시 채권/주식까지 포괄하고 있음. 이들 품목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려면 공식 외환시장이 아닌 암시장에서 교환한 외화로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는 동 품목들의 국내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 나이지리아 정부는 휘발유 소매가격에 대하여 리터당 89나이라의 상한선 적용을 유지해 왔음.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임에도 자국 내 정유시설 부족으로 휘발유 등 정유제품(나이지리아의 최대 단일 수입품목) 소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휘발유 공급이 줄어들자 암시장에서 연료가격이 급등하였음.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에 대응코자 2016년 3월 기준금리를 11%에서 12%로 1% 포인트 인상하였으나, 물가상승 추세가 가속화되자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나이라화의 달러 페그 중단 선언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6월 15일(현지시각) 나이라화의 달러 연동(페그)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

- 나이지리아 정부의 달러 페그제 적용으로 나이라화 가치는 2015년 3월부터 달러당 197~199나이라 수준으로 고정되었으나, 2014년 후반 국제유가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원유 수출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외화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하락 압력을 받아왔음.
- 중앙은행이 공식환율에 의한 외환 판매 규모를 매주 2억 달러까지로 제한하는 등 달러화 매수를 위한 대부분의 공식적인 통로를 제한함에 따라 암시장 환율은 달러 당 370나이라 선까지 급등하였음.
- 2015년 3월부터 공식환율은 달러당 197~199나이라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암시장 환율은 달러당 320나이라에 거래되어 왔음.
- 페그제 폐지 후 첫날인 6월 20일 나이라화의 미 달러당 공식환율은 265나이라로 하루 만에 약 40% 급등하여 최근 280나이라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까지 겹쳐 연말에는 300나이라에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됨.
- 나이라화 가치 하락은 국제유가가 확실한 상승세로 반전되지 않는 한 계속될 전망이며,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소비와 민간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나이지리아 정부, 연료보조금 폐지로 휘발유 가격 상한선 상향 조정

- 나이지리아 석유자원부는 5월 11일 휘발유 품귀 해소를 위해 연료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가격 상한선을 67%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가격 상한선이 종전 리터당 89나이라에서 145나이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환율이 달러당 285나이라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단행된 조치임(페그제 폐지 직전의 공식환율은 197~199나이라).
- 아울러 나이지리아 석유자원부는 수입규제도 철폐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으면 자유롭게 휘발유를 수입,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음. 석유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공급을 개선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휘발유 가격을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글로벌 원유 수요의 2%를 넘는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국내 정유업계의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휘발유 수요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4개 국영 정유회사의 생산능력은 하루 44.5만 배럴이나, 정유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부실하여 실제 생산량은 훨씬 적은 수준임.
- 나이지리아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1분기 나이지리아의 연료 수입액은 약 2,260억 나이라(약 11억 달러)로 총수입액의 15.6%를 차지하였음.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o	2016 ^f
경제성장률	4.3	5.4	6.3	2.7	2.3
재정수지 / GDP	0.2	-2.3	-2.1	-4.0	-4.7
소비자물가상승률	12.2	8.5	8.1	9.0	14.9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 및 농업 부문에 편중되어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 정부의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 및 농업이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제구조가 여전히 1차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국제유가 변동에 경제성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과거 미국 앞 원유 수출비중이 가장 컸으나,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 및 생산 본격화로 2014년 10월 이후 미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중단되었으며, LNG 역시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급감하였음.
- 현재 아시아 시장이 미국 시장을 대체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안정을 위해 산업다각화 추진이 시급함.

□ 인프라 부족, 부정부패, 고급인력 부족 등의 열악한 사업환경은 경제발전 및 비석유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나이지리아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로, 특히 수송 인프라와 전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함.
 - 넓은 국토(한반도의 4.1배), 많은 인구(2015년 1.8억 명으로 세계 7위), 빠른 인구증가율에 비해 도로, 철도 등 수송 인프라의 부족 및 노후로 급증하는 운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물의 내륙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Doing Business 2016 보고서에 의하면, 나이지리아는 조사대상 189개국 중 전력 공급 부문에서 182위, 자산 등기 부문에서 181위, 국가간 무역 부문에서 182위, 종합 169위 등 전반적으로 사업환경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나이지리아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68개국 중 136위, UN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5년 인간개발지수(HDI)에서 188개국 중 152위로, 부정부패와 고급인력 부족에 따른 열악한 기업환경이 경제발전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아프리카 대륙 최대의 원유/가스 자원 부국

- 나이지리아는 2015년 말 기준 371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세계 11위, 아프리카 대륙 2위) 및 5.1조 m³의 천연가스 매장량(세계 9위, 아프리카 대륙 1위)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향후 중동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 주목받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 유전 개발의 중심 국가임.
- 일일 원유 생산량은 235만 배럴(2015년)로 아프리카 대륙 1위임. 원유 매장량의 약 90%가 남부 Niger Delta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 8위의 원유 수출국으로서 생산된 원유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한편,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은 501억 m³(2015년)로 아프리카 대륙 2위임.

- 나이지리아는 2015년 275억 m³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하여 세계 4위, 아프리카 대륙 1위의 LNG 수출국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우리나라, 스페인 등임.
- LNG 생산시설은 Bonny 섬에 집중되어 있으며, LNG 증산 프로젝트의 추진은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LNG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음.

□ 아프리카 대륙 1위의 인구대국이자 경제대국

-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1억 7,872만 명으로 아프리카 대륙 최대이며,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세계 7위임. 아울러 2013년부터 남아공을 제치고 GDP 기준 아프리카 대륙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대형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함.
-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15년 발표한 세계인구전망 보고서 개정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050년까지 3억 9,900만 명으로 늘어나 인도,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또한 최근 수년간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구매력 확대에 따른 내수 증대가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통신업, 금융업 등 비석유 부문의 성장에 따라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중산층의 확대가 내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

-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9년 10월 “2020년 나이지리아 전략 비전” (Nigeria Vision 20: 2020)의 발표를 통해 2020년에 세계 2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 상기 목표의 달성방안으로 전력 부족, 부정부패 등의 경제성장 저해요소 개선, 석유산업과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다변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전력 부족과 부정부패 문제 등 경제발전에 고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등 계획의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화폐가치 및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물가정책은 역효과만을 초래

- 나이지리아 정부는 특정 품목 수입시의 외환사용 규제, 휘발유 소매가격 상한선 유지, 나이라화 페그제 유지 등의 각종 통화/물가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높이고 나이라화 실질가치의 하락을 재촉하는 등의 역효과를 초래하여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음.

3. 대외거래

□ 저유가 지속과 산유량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석유산업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의존적 무역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원유수출에 힘입어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3년 3.7%에서 2014년 0.2%로 급격히 위축되었음.
 - 이후 저유가 추세의 가속화로 상품수출액이 급감하면서 경상수지는 2015년 GDP 대비 -3.1%의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6년에는 산유량 감소와 나이라화 가치 하락으로 상품수출액 감소세가 계속되었으나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입 감소폭이 상품수출 감소폭을 앞지르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1%대 중반으로 전년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환율 방어와 경상수지 악화로 감소세 지속 전망

- 상품수지 흑자 증대,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에 힘입어 2012년 말 438억 달러를 기록했던 외환보유액은 2013년 이후 저유가 추세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정부가 수입물가 억제를 목적으로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재개하면서 2014년 말 342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2015년에도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악화와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계속됨에 따라 연말 외환보유액은 291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에는 페그제 폐지에 따른 나이라화 가치 하락과 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외환소비가 증가하여 연말 외환보유액이 248억 달러로 더욱 감소하겠음.
 - 다만,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상품수입액이 감소하면서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전년보다 개선된 4.7개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외환보유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단기 대외지급 능력은 아직 양호한 수준

- 2000년대 초반 50%를 상회하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05년 승인된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300억 달러)과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2012년 말 3.6%까지 낮아졌음.
- 그러나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 정부의 선심성 정책,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외채규모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동 비중은 201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6년 말에는 12%대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도 외채규모 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로 인해 2011년 말 14.0%에서 2016년 말에는 50%대 초반으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나이지리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나이라화 약세를 허용할 경우 물가가 급등할 것을 우려하여 2014년 말 이후 외환보유액의 약 20%를 환율 방어에 사용해 왔으며, 그 결과 2016년 5월 말 기준 나이지리아의 외환보유액은 10년래 최저 수준인 264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D.S.R도 2012년 말 0.4%에서 2015년 말 2.2%로 상승한 데 이어 2016년 말에는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반전되지 못하고 나이지리아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세계은행, AfDB 등으로부터의 차입과 판다본드 발행 등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총외채잔액/GDP 비율과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 및 D.S.R이 모두 상승하여 외채상환능력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지난 6월의 페그제 폐지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나이지리아의 외채상환능력 전망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o	2016 ^f
경 상 수 지	17,374	19,049	1,268	-15,439	-5,920
경 상 수 지 / G D P	3.8	3.7	0.2	-3.1	-1.4
상 품 수 지	39,190	42,172	20,823	-6,447	-3,410
수 출	96,124	97,023	81,918	45,888	33,241
수 입	56,933	54,851	61,095	52,335	36,651
외 환 보 유 액	43,830	42,847	34,242	28,285	24,821
총 외 채 잔 액	16,495	33,930	45,346	49,000	53,777
총 외 채 잔 액 / G D P	3.6	6.6	8.0	9.9	12.6
D S R	0.4	0.7	1.0	2.2	3.0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상황

□ 2015년 3월 대선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 달성

- 2015년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All Progressive Congress: APC)의 Muhammadu Buhari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나 시위 없이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이전 선거에서는 북부(이슬람교도 지역)와 남부(기독교도 지역) 출신의 인사가 대통령직을 8년씩 번갈아 맡는다는 묵계(默契)가 어겨지거나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폭동이 발생한 바 있음.

□ 정치적 안정성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

- 평화적 정권교체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정당간/종파간 갈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낮은 생활수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Boko Haram의 테러 활동 등으로 인해 정치적 안정성 확보 및 개혁에 난항이 예상됨.
- Buhari 대통령은 2015년 5월 29일의 취임식으로부터 166일이나 지난 2015년 11월 11일에 새 내각 구성을 완료하였음. 이는 부패 등에 최대한 연루되지 않은 인물들 중 적임자를 발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인해 내각 구성이 장기간 지연된 결과임.
- 장관의 수가 36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12명은 부장관(junior minister)급으로 임명하였음. 한편, 석유장관은 Obasanjo 정권에서도 석유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는 Buhari 대통령이 겸임하여 석유정책을 직접 챙길 것임을 강조하였음.
- 내각 구성의 장기간 지연으로 국정운영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만연 및 극심한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제1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2015년 2,767달러에 불과하며, UN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2013년 인구의 30.0%가 심각한 빈곤(severe poverty)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한 빈부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5년 나이지리아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6점으로, 168개국 중 하위권인 136위를 기록하였음.

□ 종족-종교적 차이로 인한 사회 내부의 갈등 상황 지속

- 나이지리아는 250여 개의 수많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으로도 북부(이슬람)와 남부(기독교)로 양분되어 종족/종교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유혈충돌과 폭력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북동부 지역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Boko Haram은 서구식 교육-문화를 죄악시하고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극단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하며 수많은 테러 공격을 주도하여 나이지리아 사회의 최대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Boko Haram에 의한 테러 공격 계속

- 2013년 1월 Boko Haram 내의 온건파 세력이 정부군과의 휴전을 선언함에 따라 상황의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이후 Boko Haram은 주로 학교와 민가를 습격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인들을 살해 또는 납치하고 마을에 방화하는 등의 테러를 계속하고 있음.
 - 특히 2014년 4월 14일 북동부 Chibok의 여학교를 습격, 276명의 여학생들을 납치하여 강제결혼, 인신매매 등의 희생양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격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음. 2016년 6월 현재 대다수의 여학생은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음.

- 1만 명 이상이 살해된 2014년을 포함하여 2009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최소 15,000명 이상이 Boko Haram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파악됨. Boko Haram은 납치한 민간인들 중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강제로 자살 폭탄 테러에 투입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음.
- Boko Haram은 나이지리아 정부군의 토벌 작전이 진행되자 국경을 넘어 카메룬, 차드, 니제르 등 인접국들에서까지 자살폭탄 공격 등 테러를 자행하여 동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국가(IS)에 충성 맹세를 선언하는 등 여타 극단주의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음.
- **무슬림 유목민 Fulani 부족의 무장세력이 농경 부족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여 사회불안 악화 일로**
 - 북부의 무슬림 유목민인 Fulani 부족과 중부/남부의 기독교계 농경 부족들은 과거 목초지와 농업용수를 평화롭게 공유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목초지와 농업용수의 사용을 놓고 갈등이 빈발하면서 Fulani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수천 명이 피살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음.
 -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의 2015년판 Global Terrorism Index Report에 의하면, Fulani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 수는 2013년 63명에서 2014년 1,229명으로 폭증하며 2014년 중 전 세계의 테러집단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인명을 살상한 집단으로 집계되었음.
 - * 1위는 나이지리아의 Boko Haram, 2위는 시리아/이라크 등지의 IS, 3위는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등지의 탈레반, 5위는 소말리아 Al-Shabaab
- 2016년 들어 Fulani 무장세력에 살해된 희생자의 수는 Boko Haram에 살해된 희생자들의 수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동 사태는 무슬림 유목민 부족이 기독교도 농경민 부족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상황으로, 나이지리아의 뿌리 깊은 부족간 및 종교간 갈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일각에서는 Fulani 무장세력과 Boko Haram 간의 연계도 의심하고 있음.

□ 무장단체 Niger Delta Avengers(NDA)의 석유시설 공격은 산유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적 불안 초래

-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기업(NNPC)은 남부 Niger Delta 지역에 근거지를 둔 무장단체 Niger Delta Avengers(NDA)가 2016년 2월부터 송유관 등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일일 원유생산량이 2015년 평균 235만 배럴, 2016년 1월 220만 배럴에서 2016년 6월 상순 150만~160만 배럴로 급감하여 2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 나이지리아의 원유 매장량의 대부분은 Niger Delta 지역에 소재하여, 이 지역의 치안 안정 여부가 나이지리아의 원유 생산과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유전개발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과 환경파괴 등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 주민들이 NDA를 위시한 무장단체를 결성하여, 석유이권 배분을 요구하며 석유 생산시설을 공격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경제는 산유량 감소로 인해 금년 1분기에 -0.4%의 성장률을 시현하여 2004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에 직면한 상황이며,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의 지위도 앙골라에 넘긴 상태임.
- NDA는 과거 수년 간 불규칙적으로 석유시설을 공격해 왔으나, 지난 2월부터는 거의 매주 공격을 자행하고 5월에는 빈도를 부쩍 높여 5월에만 석유시설 10곳을 파괴하였으며, 6월에도 이탈리아 ENI 및 네덜란드 Royal Dutch Shell 소유의 송유관, 7월 초에는 NNPC 및 미국 Chevron이 운영하는 2개의 유정(油井)을 공격하였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NDA 측에 협상을 공식 제안했으나, NDA는 지역 주민에게 석유 채굴권을 재분배하라는 등의 과격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석유시설 공격을 계속하여 나이지리아 산유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NDA의 공격 외에도 6월 22일 남부 Cross River 주의 주도 Calabar 인근에서 호주인 3명, 뉴질랜드인 1명을 포함한 광산 개발 관계자 7명이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26일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이 악화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Boko Haram, 기니만 해적 등의 퇴치를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 2015년 2월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차드, 카메룬, 니제르 등 주변국은 Boko Haram, 기니만 해적 등의 퇴치를 위한 8,700명 규모의 다국적군을 창설하였음.
- 동 다국적군은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동년 7월 말 Niger Delta 지역의 군 지휘관이었던 Iiyasu Isah Abbah 육군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Boko Haram, 기니만 해적 등의 격퇴작전을 강화하고 있음.

□ 서방과의 관계 약화,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

- 정부군의 Boko Haram 퇴치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8,000여명이 희생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한 서방의 여론이 악화된 바 있으며, 미국은 나이지리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었으나 셰일오일 개발로 2014년 10월부터 나이지리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였음.
- 인도가 나이지리아산 원유의 제1위 수입국으로 대두되었으며,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2002년 20억 달러에서 2015년 130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중국 기업들의 나이지리아 인프라 건설 투자가 추진되는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UN Comtrade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중국의 대 나이지리아 상품무역 규모는 149.5억 달러(수출 137.2억 달러, 수입 12.4억 달러)로 10년 전인 2005년의 28.3억 달러(수출 23.0억달러, 수입 5.3억 달러)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중국은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Sinopec 등이 나이지리아의 유전, 가스전 개발 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나이지리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면서 기 진출한 Chevron, ExxonMobil, Eni, Total 등 서방의 석유메이저들과 경쟁하고 있음.

□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맹주 역할 담당

- 나이지리아는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내의 리더이자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강국으로 지역 내 분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 다만, 외환소비 축소를 위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수입 억제정책은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관계 및 ECOWAS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규모 외채탕감 경험

- 2005년 파리 클럽 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300억 달러의 나이지리아 외채 중 60%인 180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6년 300억 달러의 외채를 120억 달러에 매입하는 방식(buyback)으로 채무를 탕감받았음.

□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

- 2016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단기 1억 5,390만 달러, 중장기 18억 5,320만 달러의 총 20억 710만 달러로 연체 잔액은 2,230만 달러이며,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최근 OECD,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 OECD는 2016년 6월 개최한 CRE 회의에서 저유가 지속에 따른 거시경제 지표 악화, Boko Haram 등의 테러로 인한 사회불안 가중 등을 반영하여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음.

- Moody's는 2016년 4월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Ba3에서 B1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으며, Fitch도 2016년 6월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음.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6 (2016. 6)	5 (2015.10)
Moody's	B1 (2016. 4)	Ba3 (2016. 3)
Fitch	B+ (2016. 6)	BB- (2015. 9)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80. 2. 22. (북한과는 1976. 6. 25. 수교)
- 주요 협정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82), 해운협정('89), 투자보장협정('98), 이종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정('06), 문화 및 교육 협력협정('12)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3위의 교역대상국
 - 2015년 기준 나이지리아는 앙골라와 남아공에 이어 우리나라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3의 교역대상국으로, 2015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18.1억 달러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LNG 등임.

< 표 4 > 한·나이지리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3	2014	2015	주요 품목
수 출	1,570,675	1,378,439	685,804	합성수지, 자동차
수 입	2,307,248	3,095,631	1,123,491	LNG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6년 3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40건, 297,265천 달러

V. 종합 의견

- 나이지리아는 석유-천연가스 생산과 농업, 금융 등 비석유 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4~5% 수준의 경제성장을 시현해 왔으나, 저유가 추세 지속과 나이라화 가치 하락으로 2015년부터 쌍둥이 적자가 발생하고 2016년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등하는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2015년 대선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나, 부족간 및 종파간 갈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질적인 부정부패, 북부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Boko Haram과 Fulani족 무장세력 및 남부의 Niger Delta Avengers의 테러 활동 등으로 정치/사회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환율방어 정책과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고 외채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5.4%,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페그제 폐지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6664)

E-mail : oki1122@koreaexim.go.kr